탄소 줄이는 신안 섬

군, 작은섬 전기차 구매 때 200만원~400만원 지원
2050 탄소중립 실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정책 추진

신안군이 작은섬(낙도)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다가서기 위해 올해부터 작은섬 주민이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200만원~400만원을 정액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은섬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군은 이달 말 께 무공해차(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전기차량 206대(승용 110대, 화물 80대, 굴착기 1대, 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430만원이지만 작은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183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950만원이지만 작은섬 주민이 구매 시엔 최대 2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하거나, 2년 이내 폐차 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안군은 앞서 지난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최대 3000만원) 이자를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LGU+와 협약을 통해 관내 완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충전소가 지금보다 7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그동안 도서 지역 전기충전소 미설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기차 보급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이라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지점에 서 있으며 전기차 시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대화 늘리는 박 군수

박우량 군수, 오늘부터 팔금면 등 14개 읍·면 순회 대화 나서

신안군이 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13일부터 읍·면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어간다.

신안군은 박우량〈사진〉 군수가 당초 지난 6일 지도읍부터 순회할 계획이었지만 청보호 전복사고로 인해 일주일 늦춰 13일 팔금면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14개 읍·면으로 그동안 분주한 군정과 코로나와 섬의 교통 환경 등으로 주민들과 고충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군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생활방식을 고려해 주민과의 대화도 특색있게 가져갈 예정인데, 지난해 성과와 2023년 주요 군정사업 설명은 물론 가뭄해결과 마을별 복지 문제 등에 관한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심중히 청취하고 작은 민원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에 답변과 전망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뜻에 최대한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한 섬 주민은 "면사무소를 찾거나 전화 등으로 어려운 일들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군수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얼굴을 마주 보고 고충해결에 대한 대화를 한다니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동성이 취약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바쁜 일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지역 주민들 모두 함께 참여해 생활의 고충을 일시에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해나가자는 뜻에서 순회하는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시, 이달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씩…청소년쉼터 등에 3억9000여만원

목포시가 한파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 달 시비 4억 1000여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노인맞춤돌봄대상 중 홀로 사는 노인 3012세대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했다.

시비 1억 3000여만원을 통해 경로당에 지난해보다 월 5만원 인상된 난방비를 지급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에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최대 50만원의 난방비를 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한 3억9000여만의 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 1783세대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했고 아동복지시설·청소년쉼터 등 60개 시설에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최대 50만원의 난방비를 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2배 인상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주)영신종합건설, 메가커피 용당점에서 기탁받은 기부금 7500여만원을 저소득층 710여세대에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하고 199개 경로당에도 개소당 2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목포시는 2022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복지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포상금 1500만원도 저소득 및 위기가구 150세대에게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청정완도 특산품, 美 동부 공략 '시동'

뉴욕 등 전남 상설 판매장 3월 판촉전…냉동 전복 등 45개 품목 선적식

완도군이 지난 8일 완도군 농공단지 소재 바다명가 제2공장 앞에서 오는 3월 미국 동부에서 열릴 특산품 판촉전을 위한 선적식을 가졌다. 〈사진〉

판촉전은 오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한양마트 힉스빌 점과 리지필드 점에서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냉동 전복, 전복 가공품, 곱창 김, 미역 등 총 45개 품목, 6000만 원 상당의 물량을 선적했다.

판촉전 참가 기업은 총 10개소로 바다명가, 이문삼육오, 완도다, 우성물산, 완도사랑S&F, 완도전복주식회사, 완도맘, 아들래, 대한물산, 해성인터내셔널이며, 참가 기업 및 제품 선정은 바이어에 의해 결정됐다.

이번 행사는 미국 동부 최대 상권인 뉴욕, 뉴저지 지역에 위치한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에서 완도군이 처음 개최하는 판촉전으로, 기존 서부 지역과 온라인에 집중되었던 판촉·홍보 활동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시식회를 개최하고, 지역 신문 및 라디오 광고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 행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도 글로벌 대형 유통 체인과 연계되어 운영 중인 해외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을 적극 활용하여 완도 특산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증대에 박차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신중년 일자리사업 적극 시행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13개 사업 114명에 제공

해남군이 올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해남군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5억 25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8억 8700만원을 투입해 올해 13개 사업 1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퇴직한 전문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숲해설 스토리텔링단(7명), 구석구석 사진단(5명),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우미(1명), 해남군 치매보안관! 치매안심매니저(7명),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운영(10명), 신중년 생활스포츠(파크골프) 경력형 일자리(10명),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멘토링지원 사업(10명) 등 7개 사업분야에 50명 규모이다.

해남군은 이미 1, 2차 모집을 통해 41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근무지 배치했으며, 모집미달 3개 사업 9명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를 통해 추가모집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중년 경력형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34명),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30명) 일자리 사업도 추진중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여건상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신중년 전문직들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 사회 공헌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